

수능 수험생에 무료 수영 강습

학생교육문화회관, 12월31일까지

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무료 개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20 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 강습을 진행하고 체육관을 개방하는 등 장기간 시험공부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대학진학을 앞두고 여가 활용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영장 무료개방은 15일부터, 체육관(배드민턴장, 탁구장)은 18일부터다.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또한 12월 한 달간 수험생을 위한 무료 수영 강습반을 편성해 학생들이 수영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무료이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험생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제시하면 1일 1회 이용이 가능하다.

수험생을 위한 수영강습반 등록은 23일부터 31일까지 회관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 한 달간 강습반을 운영한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권래용 관장은“이번 고3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지속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수험생의 체력회복과 정신 건강에 기여하고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스포츠를 통한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재수생, 학교 밖 청소년 수험생도 수험표를 지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연수원 ‘학교회계 생생 토크콘서트 개최’



전남도교육연수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 권역(동부권, 서부권) 4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회계 생생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의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자, 패널, 공연 그리고 방청객이 함께하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회계(에듀과인, 세입·세

출, 계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출연자와 참가자들이 학교회계에 대해 묻고 답하는 토크(talk) 방식의 연수로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해 왔던 ‘찾아가는 맞춤형 계약실무 과정’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반영하듯 멀리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도 직원들이 찾아와 콘서트를 함께했

다. 행사 진행은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학교회계에 대한 질문을 받아 출연자들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는 방식이었으며, 콘서트 장에도 구두질문과 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질문지를 비치하여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우리지역 교육원로 이의제(전 보성공공도서관장)님의 색소폰 연주는 바쁜 업무에 지친 참가들에게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연주실력 또한 뛰어나 이목집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김석수 전남남도교육연수원장은 “이번 ‘학교회계 생생 토크 콘서트’는 새롭게 차별화된 교육의 새 지평을 연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생동감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학생도박 예방에 팔 걷어붙였다

일선 학교 예방교육 강화 교감 연수 등 총력 경주

전라남도교육청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 도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8일과 19일 이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해남문화원, 담양리조트,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감 360명을 대상으로 학생도박 예방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은 지난 5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학생도박문제 조기 개입, 치유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2019 학생도박 예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선제적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도박은 중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유 또한 쉽지 않아 예방이 꼭 필요한 상황이나 전남 학생의 경우 교육, 캠페인 등 예방활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도박중독 예방

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개발한 영화를 활용한 토론형 수업으로 진행된다. 주입식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총 3편의 영화를 보게 한 뒤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 수업을 통해 도박의 폐해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교사들도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도 제공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학생들의 예방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박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19 전남 초등 독서토론탐마당 성료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이 주최한 ‘2019. 전남 초등 독서토론탐마당’이 16일, 시·군 대표 24개팀, 96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학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생각을 키우고 말문을 열어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독서토론 문화 확산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실시하게 된 지 올해로 4회째이다.

지난 9월부터 학교와 지역 대회를 거쳐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최종 선발됨으로써 명예를 걸고 평소 독서토론 수업을 통해 익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독서토론탐마당은 오

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모두 3개의 마당으로 나누어 전개됐다.

첫 번째 마당으로 학생들의 긴장을 푸는 마음열기 활동을 함께 하는 ‘책 놀이’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마당은 1차 독서토론탐마당과 2차 독서토론 대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차 독서토론탐마당은 각 4팀씩 6인원으로 나뉘어 각 팀이 선정한 책 속에서 준비한 주제에 대해 주장과 근거를 발표하고, 상대팀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후에 진행된 2차 독서토론탐마당은 1차 토론

결과에 따라 선발된 6개팀이 전체 참가자 앞에서 탈벌로 날카로운 질문과 창의적인 답변이 오가며 치열한 논쟁을 펼치면서도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모습도 잃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세 번째 마당은 “불량한 자전거 여행”의 저자 김남중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 만남’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작가의 책 쓰기 구상 및 창작하는 과정을 듣기도 하고,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통하여 책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대회 운영위원장장을 맡은 이숙 조성남초 교장은 “자연스럽고 신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공평했다.

보성 예당초 “우리 고장에서 가을 농사체험 해 봐요”



예당초등학교는 1학기 2주간에 걸쳐 운영되었던 농사체험학습 기간에 심어두었던 고구마를 15일에 전교생이 캐고, 가지, 호박 등도 따며 밭을 정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고장탐사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부분을 마무리하였다.

학생들의 고장에 대한 애함심·자존감 및 사회성·창의융합적 사고 등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교특색사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우리 고장탐사 프로젝트’는 고장의 3경(산, 바다, 호수)을 중심으로 한 체험학습과 농사체험을 중심으로 5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고장 탐사 프로젝트’의 농사체험학습은 우리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사를 학생들이 학교 뒷밭에서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나주지역 보고회 성료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이 16일 혁신도시 내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2019.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나주 지역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미래도전프로젝트에 참여한 타 지역 학생들의 특별한 버스킹 공연도 함께 열려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청소년 미래도전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원

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 기간 실행·평가·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미래역량을 기르는 전남형 학생 중심 프로그램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야심차게 준비해 추진중이다.

중부권역(나주, 화순, 영광, 장성) 6개의 미래도전팀에서 활동한 학생들로 구성된 버스킹 공연팀은 각 지역에서 학교 및 지역축제에

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날은 나눈페스티벌 일환으로 나주 혁신도시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했다.

또한 야외공연장 한편에서는 나주지역 미래도전프로젝트 보고회가 활발히 펼쳐졌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주지역 학생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